





# LIG손해보험이 KB손해보험으로 새 출발합니다

함께 하면 할수록  
더 밝고 크게  
빛을 내는 희망처럼,  
LIG손해보험이  
KB손해보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더 큰 안심을 드리는  
국민의 희망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겨울 이야기**

홀트 창립 60주년을 맞아 진행된 '홀트와 나'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주향 양. 자신의 입양 이야기를 옹기 내어 쓸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응원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8p 계속)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80호 · 기간 **발행일** | 2015년 12월 18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홍미경(홍보팀장), 박재범(후원관리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이은정(해외사업팀장), 김해성(아동양육팀장), 이창신(입산복지타운), 김병수(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알투디투 TEL: 02-2135-1901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079 FAX: 02-331-7080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 · 좋은 사연 · 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Contents**

- 03 **Holt Letter**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홀트
- 04 **홀트 창립 60주년 연중 시리즈**  
함께 꿈꿔온 60년을 기념하다,  
홀트 창립 기념식
- 08 **입양, 우리 품으로**  
입양은 제게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 12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뽀얀 피부에 갈색 머리카락,  
도돌한 입술이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성진이
- 14 **기획**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전달하는 사랑  
부산시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 독거어르신들 식사 지원 서비스
- 18 **Love In World**  
홀트 60주년 "마음 담아 진심으로 축하해요!"
- 20 **곶곶GoodGood한 엄마**  
TALK & CONCERT "엄마사랑"  
세상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바로 '엄마사랑'입니다
- 22 **Holt Interview**  
사랑은 끝없이 순환한다  
입양 1세대 김 리(Kim Lee)
- 24 **나눔이웃 나눔기업**  
우리는 사내수공업으로 봉사활동 한다!
- 26 **희망 풍경 1**  
음악이 있어 더욱 행복한 만남 '사랑나눔뮤직페스티벌'  
홀트학교 개교 40주년 기념음악회
- 28 **희망 풍경 2**  
전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소아재활팀, 전주영아원 천사들과 만나다
- 30 **Holt News**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홀트**

창립 60주년의 각종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모든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직접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지면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트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설립자 해리 홀트 씨 부부의 신앙적인 바탕 위에 세워진 설립 정신 '사랑을 행동으로'를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몸속에 맑고 깨끗한 사회복지의 피가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끌어내는 후원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2015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1년 동안 홀트가 축복으로 받은 것은 무엇이며 부족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잘 정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받은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인천홀트복지센터와 광주홀트복지센터를 오픈했으며, 미혼모의 지원을 위한 'IBK와 함께하는 썬더 루 스토어' 세 곳을 오픈했습니다. 국내 입양인과 입양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했고, 해외 사업으로 탄자니아에 지원사업 운영을 준비했으며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홀트 가족과 홀트를 사랑하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모두의 건강이 축복받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모들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을 빨리 찾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사회, 겸손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억지가 통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돕고 후원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홀트도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들과 함께 먼 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외롭고 상처받은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는 기관이 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대열 드림



홀트아동복지회	
<b>이사회</b> 말리 홀트 이사장   이해경 이사(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임부웅 이사(HICS 부회장)   정용근 이사(전)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복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홀트전국후원회 회장)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교수)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b>충청사무소</b> www.ccholt.or.kr T.042)586-1983
<b>본부</b>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02)331-7000 T.1588-7501	<b>부속기관</b>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53)795-4300
<b>지방사무소</b>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b>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b> T.032)424-1391 전주영아원 T.063)222-1559 홀트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b>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b> 아름뜰 www.holtarum.or.kr T.02)334-4614 고운뜰·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아침뜰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대전클로버 www.djclover.or.kr T.042)583-4006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T.053)654-0181
	<b>해외원조사업</b>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4006-4116

# 함께 꿈꿔온 60년을 기념하다

## 홀트 창립 기념식

가을 내음이 절정에 달한 10월 16일, 홀트의 창립 기념식이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국내외 3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하고, '입양 수기 공모전' 시상식과 '영혼의 소리'의 감동적인 공연이 함께해 더욱 뜻깊었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Love In Action! 축하와 기대가 함께하다

행사 시작 30분 전, 속속들이 모여든 내빈들의 반가운 인사가 마치 산뜻한 에피타이저처럼 행사장을 경쾌하게 감쌌습니다. 해외에서 온 손님들까지 있다 보니 오랜만의 만남이 더욱 반갑기만 합니다.

드디어 불이 꺼지고 이어령 전 장관과 리퍼트 주한대사, 송재호·김성은·선·정혜영·알렉스·윤택·백지영 홍보대사 및 주영훈 홀트패밀리의 축하 영상 시청과 함께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과 미혼양육모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함을 호소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다시 한 번 'Love In Action!'이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홀트의 임직원과 홍보대사들은 물론 수많은 후원자 등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다함께 창립 60주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구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귀한 손님들이 무척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들은 축사를 통해 한결같이 홀트의 60주년을 축하하며, 홀트가 앞으로도 아동복지에 있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Forever!



1. '홀트와 나' 수기공모 수상자들
2. 국제홀트아동복지회 필립 리틀튼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김대열 회장
- 3, 4. 송재호 홍보대사를 비롯 감사패를 전달받고 기념촬영하는 수상자들

### 감사패, 그리고 '홀트와 나' 수기 공모의 주인공은?

이날 홀트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어려운 이웃에게 큰 사랑을 쏟으며 복지 증진에 공을 기여한 송재호 홍보대사, 베이비뮤즈, 홀트 한사랑회, 현대홈쇼핑, 신한금융투자 유재택 님, 김원조 님, 이원우·최강선 부부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꾸준한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홀트와 함께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된 창립 60주년 기념 '홀트와 나' 수기 공모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사춘기 소녀의 입양 이야기>를 출품한 이주향 양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상은 <인연과 사랑>의 나현숙 님과 <홀트와 함께한 1학년 11반>의 한영진 님, 우수상은 <친정엄마>의 정일정 님의 2명, 장려상 10명, 특별상 16명 등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특히 대상의 주인공 이주향 양은 16세라는 어린 나이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기에 더 큰 박수와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1. 말리 홀트 이사장의 팔순 기념 인사
2. 홀트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
3. 아름다운 청소년 조세원·강예주 양의 연주
4. 5. 주요 언론에 보도된 창립 60주년 기사들
6. 홀트 창립 60주년 기념 도서 발간

### 말리 홀트 이사장을 위한 깜짝 파티!

사실 창립 기념식 즈음, 말리 홀트 이사장은 팔순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홀트 60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깜짝 파티를 준비했고, 그녀의 생애를 담은 동영상 한 편으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며 휠체어를 고치는 등 홀트와 함께해온 긴 세월, 80년의 시간을 단 3분짜리 동영상에 모두 담을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약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며 평생을 바쳐왔는지는 모두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등장한 무려 3m 길이의 떡 케이크! 말리 홀트 이사장뿐만 아니라 행사 참석자 모두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을

도로 엄청난 크기여서 무대 위로 이동시키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너무 큰 케이크에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주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자리를 주시고 무척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원래 생일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인데, 홀트의 모든 가족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이선영 KBS 아나운서의 말처럼, 모든 가족이 함께였기에 더욱 기쁜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 대미를 장식한 홀트의 꿈이 담긴 공연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두 팀의 공연은 창립 기념식의 대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청소년' 6기와 7기에 선발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2학년 조세원 양(바이올린)·강예주 양(첼로)과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영혼의 소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세원·강예주 양은 '참 아름다워라'를 연주했는데, “홀트가 세상에 퍼트리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이 곡을 선택했다”고 전해 모두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영혼의 소리'의 공연은 그야말로 감동의 거센 파도였습니다. 한 곡을 외워 부르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중증장애인 24명이 너무나도 해맑게, 온 정성을 다해 노래하는 모습에 결국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작한 손뼉 박자 맞추기에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 홀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얼마나 형언할 수 없이 따스하고 포근한 희망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홀트가 꿈꾸는 세상은 단순합니다. 모든 아이가 가정에서 꿈꿀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모두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세상.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던 창립 기념식은 그렇게 감동의 물결을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 창립 60주년 관련 행사들



2015. 10. 12  
홀트 창립 60주년 기념 감사예배



2015. 10. 13  
홀트 창립 6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2015. 10. 14~23  
홀트 창립 60주년 기념 모국연수



2015. 10. 15  
홀트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2015. 10. 24  
홀트 창립 60주년 기념 국내세미나

# 입양은 제게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홀트와 나' 수기 공모전 대상 이주향 학생 이야기



참 기특합니다. 16살의 나이로 수많은 응모자들 가운데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다니요. 10월 16일 진행된 시상식 무대에 오른 주향 양의 모습은 어린 나이답지 않게 당당하기 그지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 다. 주향 양이 자신의 입양 이야기를 용기 내어 쓸 수 있었던 이유, 그런 그녀를 힘껏 응원해준 가족의 이야기를 들 어보고자 합니다.

“애가 글썸, 처음에는 시상식에 혼자 오겠다고 했었어요. 그 먼 부산에서 서울까지. 낯선 곳에서 혼자 힘 으로 해보이고 싶기도 하고, 사춘기 소녀답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기도 했나 봐요. 그런데 막상 저한테 말하고 나니까 좀 무서워졌다는 거 있죠? ㅎㅎㅎ.”

어머니 박상선 씨가 딸의 상경 도전기를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무리 기숙사 생활을 하며 독 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아직 한없이 어려 보이는 딸이 그런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엄마는 대 견하기만 합니다. 생후 10일, 알몸으로 그녀의 품에 안겼던 그 작고 어린 아이가 이만큼 성장하다니... 처음 만난 순간 온몸에 흐르던 전율, 오랜 시간 견뎌왔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던 환희를 그녀는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무대에 올라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로 상을 받는 딸이 더 빛나고 커 보입니다.

## 친구들이 기도의 힘으로 1등 한 거래요!

사실 처음에는 모녀가 공모전에 함께 참가하려고 했습니다. 박상 선 씨가 함께 도전해보자고 딸을 꼬셔(?)놓고선 결국 포기하는 바 람에 주향 양 혼자 응모하게 됐지만 말입니다.

“전 솔직히 정말 참가하기 싫었거든요. 엄마가 하자니까 준비하 기 시작한 건데, 갑자기 한 10일 후쯤인가 포기를 선언하시더라고 요. 네, 배신당한 거예요(웃음).”

그렇게 시작한 글쓰기는 한 달이 넘는 동안 계속됐습니다. 사실 초고는 더 빨리 나왔으나 글을 읽어본 학교 친구들이 “야, 너 1등은 못하겠다~”는 평을 내리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쓰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이렇듯 혹평을 했지만 주향 양이 학업 틈틈이 글 쓰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친구와 선생님들. 그랬기에 대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준 것 또한 그들이었습니 다.

“자율학습 시간에 엄마 전화를 받은 수상 사실을 알았어요.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짜~!” 소리를 지르니까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 며 복도로 뛰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선생님을 붙들고 또 전 방방 뛰었죠. 친구들은 기도 덕분에 대상 받은 거라고 축하해주고, 소식 을 들은 교감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별떡 일어나 박수를 치시며 “할 렐루야~!”를 외치셨죠. 하하.”

주향 양과 가족에게 이번 수상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한때 입양 문제로 힘들어했던 그녀가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야기 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줬고, 또 앞으로는 더욱 당당하게 입양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주향 양은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길 참 잘했다고, 이런 영광을 준 홀트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 입양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종해·박상선 부부는 주향 양의 입양 사실을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습니 다. 입양 신청을 하고 얼마 후 예비맘으로서 한국입양홍 보회 전국대회에 참가했고, 주향 양이 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입 양가족’이라는 말을 언제 어디에서나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향 양은 어릴 때부터 나는 선택받은 특별한 아이구나, 입양아이 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나는 누구보 다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 그





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초음파 사진을 가져오라는 과제가 주어졌고 그걸 수행할 수 없었던, 입양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친구들의 시선을 받게 됐던 주향 양은 잠시 입양이 싫어지게 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언제나 나서서 일을 해결해주셨고,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진실되게 답을 해주셨죠. 그런 것들이 제겐 큰 힘이 되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입양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을 받을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주향 양은 좀 더 자신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입양이 왜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주향 양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상담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입양, 그리고 입양 친구들에 대해 세상에서 제일 잘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실. 늘 그녀를 응원하는 가족과 함께 주향 양이 어떤 꿈을 찾아갈지, 모두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Heart



〈대상 수상작〉

## 사춘기 소녀의 입양 이야기 ♥

저는 16살 말미를 보내고 있는 중학생 이주향입니다. 저는 태어난 지 10여 일 만에 저희 부모님께서 입양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보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입양을 결정하신 부모님 밑에서 저는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가 친척들 중 마지막 아이일 줄 알았던 사촌 오빠 이후 4년 만에 제가 생겨난 터라, 저는 예뻐받고 사랑받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행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입양부 목사님의 추천으로 한 방송에서 다큐 특집을 찍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참여하시는 방송에서 경품을 타는 즐거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입양이 좋은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교회의 특집 다큐로 방영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찬양팀이나 율동팀으로 꾸준히 참여하여 교회에서 주목받는 아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저에게 오는 혜택으로만 보여 참 행복했습니다.

모든 교인 앞에서 초등학교 입학 선물과 축하금을 받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선택받은 특별한 아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아마 저는 입양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밤늦도록 일하시면서도 늘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시고, 좋은 것들을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입양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그 생각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준비물로 초음파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입양이 너무 싫었습니다. 내 생모는 왜 나에게 대한 자료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까. 내 생모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해 방학에 저는 부모님과 함께 홀트에 찾아가 생모를 찾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장님은 제

가 19살이 되어야 엄마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고,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3학년 때 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방송을 본 친구들이 “엄마도 모르는 게...”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매체를 통해 막장 드라마 같은 신선한 내용들을 접하자 “저희 생모도 재벌이면서 너를 숨기려고 입양 보낸 거 아니야?”라는 건디기 힘든 말도 했습니다. 제 주위의 입양된 친구들은 생모를 찾아 만나보기도 하는데, 왜 나는 만날 수 없는 걸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양에 대한 친구들의 시선은 점점 무더지는 것 같았지만, 제가 입양이라는 이유로 불쌍하다고 여겨 친하게 지내려는 아이들을 보면 또 다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올라온 지금, 입양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한 학년에 한 명꼴로 입양가족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반에는 저를 포함해 3명이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 이상 입양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국내 입양아들이 이런 환경에 살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이들이 늘어

나, 더 이상 상처를 주는 친구들이 없는 환경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가끔 입양아인 것을 공개하면 “입양되면 양부모가 진짜 아빠, 엄마 같아 보여?”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지금 저의 양부모님은 누가 뭐래도 친부모님이자 명백한 서류상의 부모님이고 저희 보호자입니다”라고요.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입양은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확실히 알기에, 이제는 더 이상 입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입양을 좋아합니다. 제 꿈은 입양된 청소년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이끌어주는 상담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입양 사실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입양은 무엇보다 좋은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입양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만, 입양이 대단해지는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중략)



## 뽀얀 피부에 갈색 머리카락, 도톰한 입술이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성진이

뽀얀 피부에 갈색 머리카락, 큰 귀와 도톰한 입술이 매력 포인트인 성진은 2012년 12월 22일,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우리회에 입소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다른 아이들과 별 차이 없이 건강해 보였는데 점점 또래에 비해 하나 둘 발달이 늦었던 성진이.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한 대학병원의 신경외과에 진료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3D CT 등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두봉합조기유합증(metopic craniosynostosis)과 중간선 뼈 과다형성(midline osteo hyperplasia)이라는 진단받게 됐습니다.


\*전두봉합조기유합증 : 두개골에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 두개골을 이루는 뼈들이 유합하는 과정이 너무 일찍 일어나 비정상적인 모양의 머리를 야기하는 질환.

두개골 조기유합증 진단을 받은 성진은 2014년 12월 18일, 두개골 뼈를 늘려주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24개월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잘 이겨내 8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성진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늘려놓은 두개골이 다시 붙지 않도록 박아놓은 5개의 나사를 매일 한 바퀴씩 돌려주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소독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위탁모는 아이가 그 부위를 만지지 못하도록 붕대를 수시로 닦아주고 같이했습니다.

위탁모의 오랜 정성으로 성진은 빠른 회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두개골이 잘 고정되어 고정된 나사를 제거했고, 어린이가 느끼기에 많이 답답했을 의로 헬멧 치료도 6개월간 꾸준히 착용해 지금의 성진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잘 견디며 걸어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위탁모의 지극한 보살핌과 사랑 때문입니다. 성진의 의료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걱정하기보다는 다른 아이에 비해 조금 발달이 느린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위탁모에게는, 자신의 몸을 챙기기보다 성진의 성장과 발달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외출 중에도 성진에게 더 많은 자극을 주기 위해 낱말카드와 책 등을 더욱 열심히 보여주고 읽어주었습니다.

성진은 아직도 신체, 사회정서, 미세운동, 언어 등 전반적인 발달이 느린 상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회에서 지원하는 전문 언어 및 감각통합치료를 주 2회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위탁모가 있으니, 지금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좋은 가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글 \_ 박혜정 · 아동양육팀



### 지난 호에 소개되었던 서윤이는

선천성 거대결장증과 동반된 단장증후군 질환으로 소화 및 흡수가 원활하지 않던 서윤이는 조금씩 호전되며 완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윤이가 하루 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전달하는 사랑

## 부산시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 독거어르신들 식사 지원 서비스

요즘 TV를 켜보면 먹방을 넘어서 쿡(Cook)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최고라는 사실을 아는지... 이런 상황에서 반송2동 LH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일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주목할 만한 일이다. 비록 TV 속 음식들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스함을 간직하고 있는 밥 한 끼는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급 세대와 독거노인 세대

부산시가 25년 전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 무허가, 불량주택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곳이 반송2동의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표1에서 보듯이 반송2동의 경우 전체 12,653세대 중 수급세대가 2,674세대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반송2동 영구임대주택인 LH주공아파트는 반송2동 수급자 2,674세대 중 1,122세대인 66%로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노부부 가정, 독거노인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세대와 독거노인 세대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1. 지역 내 수급자 현황〉

구분	일반 세대	수급자 세대	계
반송2동	9,979세대 (25,352명)	2,674세대 (3,775명)	12,653세대 (29,127명)
LH주공아파트	588세대 (1,343명)	1,122세대 (1,561명)	1,710세대 (2,904명)
비율	5.9%	41.9%	1.35%

장애인 현황의 경우 LH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2,904명 중 779명으로 26%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경우에도 2,904명 중 65세 이상이 638명으로 22%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중 수급독거노인의 비율은 65세 이상 중 72.2%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층 수급 대상 비율이 높고, 장애인과 노인 가구의 주거 비율이 높은 반송2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특히 결식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표2. 지역 내 장애인 현황〉

연령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명수	6	12	31	109	205	216	151	44	5
비율	0.8	1.5	4.0	14.0	26.3	27.7	19.4	5.7	0.6
총계	779명								

〈표3. 지역 내 노인인구 현황〉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급 독거노인
638명	461명



1. 도시락 받는 대상자
2. 경로식당 어르신들
3. 반찬 서비스 배달기는 수영로교회 재가봉사부
4. 후원받은 제철 과일





1



2

### 어느덧 21년, 그리고 보글보글 사랑을 끓이는 사랑爰죽

1994년 5월 지역주민을 위해 무료급식소가 개소됐다. 지역사회 내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의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당일 공수하는 식자재로 관내 식당에서 직접 조리해 경로 식당,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300일 이상 운영, 1일 평균 180명의 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별로 보면 1회 평균 경로 식당 65명, 도시락 배달 68명, 밑반찬 배달 서비스 50명이 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다.

지역 저소득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시작한 급식소는 단순 결식 예방뿐 아니라 독거세대의 안부 확인 기능까지 하고 있다. 대상 세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매일 안부 확인을 함으로써 대상 세대에게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건강상의 이유로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도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 2014년 해운대구 보건소와 '건강한 반송 만들기 사업' 협약을 체결해 '사랑爰죽' 사업을 시작했다. 사랑爰죽은 반송2동 주공아파트 내 거주하는 주민 중 치아 손실, 건강 쇠약 등의 이유로 섭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세대에 죽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목요일 푸드방에서 다양한 종류의 영양죽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고 결식 예방과 영양 관리를 하고 있다.



1



2



3

1. 짜장면 봉사단  
2. 새마을부녀회 밑반찬 봉사  
3. 죽포장 중인 정수민 자원봉사자

1. 따끈따끈한 밥 담기
2. 호박죽
3. 인터뷰한 천모년 사랑爰죽 자원봉사자



3

### 제2의 청춘, 사랑爰죽으로 내 안의 재능을 발휘하다

“내 나이 70, 반송에 이사 와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사랑爰죽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났습니다. 원래 좋아하고 잘하던 요리를 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고, 내 마음을 이웃들에게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서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매주 영양죽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 정수민, 천모년, 박정임, 이석순, 차하순, 김영수 등 6명의 자원봉사자가 매주 목요일 운봉종합사회복지관 푸드방에서 뜨거운 열기와 싸우며 맛있게 죽을 만들고 있다. 사실 죽은 기존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 문제를 주민이 해결하면 그 의미가 더 커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주민 3명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6명이 모여 활동하고 있다. 적은 인원으로 40인분의 죽을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야채죽, 호박죽처럼 기본적인 죽으로 시작해 자원봉사자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 황태죽, 미역죽, 대추율무죽 등 평소에 접하기 힘든 죽도 만들었다. 지역 자원봉사자에게 사랑爰죽이 더 특별한 이유는 노년기에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하는 요리 실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는 시간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다들 무척 즐거운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이웃들이 함께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도 많다. 우리 복지관의 경우 해운대구 내에서도 무료 급식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수가 월등히 높은 편인 것은 물론 정해진 정원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탓에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활발한 자원 개발 활동 등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글\_ 장희정 · 운봉종합사회복지관

# 홀트 60주년 “마음 담아 진심으로 축하해요!”

우리가 캄보디아와 몽골에 해외사업장을 짓고 그곳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기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열악하기 그지 없던 환경에서 교육은커녕 배고픔조차 해결하기 힘들었던 아이들은 이제 많은 이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나며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홀트의 60주년, 그 아이들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우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한 없이 맑고 빛나는 마음을 모아 이곳까지 날아온 기쁨의 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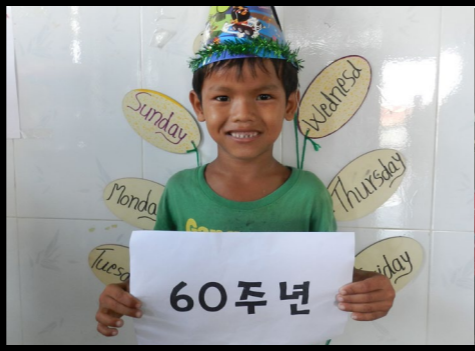
## 캄보디아



## 몽골



홀트의 60세 생일을 축하해주는 아이들, 참 예쁘죠? 캄보디아와 몽골의 미래가 이 아이들 눈속에서 그리고 가슴속에서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라고 하죠. 일생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성장일기 한편에 이 귀한 사랑으로 이어진 돌다리가 굳건히 받쳐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TALK & CONCERT '엄마사람'

# 세상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바로 '엄마사람'입니다!

11월 26일 저녁 7시 30분, 일산 고양아람누리음악당(하이든홀)에서는 대단히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미혼모자가정을 위한 <엄마사람> 토크 콘서트가 개최됐기 때문이다. 겨울바람마저 온기로 촉촉이 물들인 현장을 지면에 고스란히 옮겨왔다.



### '꽃GoodGood한 엄마' 캠페인 후원

1899-0923 / 02-331-7082  
www.holt.or.kr

'꽃GoodGood한 엄마'는 미혼양육 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꽃GoodGood(좋은)한 엄마로 살아가길 희망하고 응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양육모들이 더욱 꽃GoodGood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 엄마사람 위한 겨울밤의 선물

입동 이후 처음 불어 닥친 한파 탓에 오고가는 사람마다 차림새가 투박하다. 그렇지만 고양아람누리음악당 하이든홀 안은 계절이 무색할 정도로 훈훈한 기운이 감돈다. 오늘은 세상의 모든 엄마를 응원하는 토크 앤 콘서트 <엄마사람>이 펼쳐지는 날인 까닭이다. 기획부터 출연, 진행까지 모두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루어진 해당 토크콘서트의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은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혼모자가정의 아동양육기금으로 쓰일 예정. 무엇보다 롯데홈쇼핑의 후원과 해성DS(주) 협찬으로 미혼모와 위탁가정 또한 초대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다.

빈자리를 찾기 어려워만치 관중석이 꽉 들어차자 사회자인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무대 위로 등장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의 시원한 인사에 커다란 함성이 터지고 드디어 공연의 장막이 걷힌다. 캐주얼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돋운 그녀 뒤로 이내 가슴 찡한 오프닝 영상이 펼쳐진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후에야 비로소 느끼게 된 엄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 등이 녹진하게 배어 있는 어느 엄마의 일기와도 같은 영상. 이를 보곤 곳곳에선 가만가만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다.

여세를 몰아서 무대를 장식한 첫 초대게스트는 여성듀오 옥상달빛이다. 읊조리듯 노래하는 창법으로 많은 여성 팬을 보유하고 있는 그녀들이 택한 첫 곡은 '히어로'. "세상의 모든 엄마는 히어로라 생각한다!"며 선곡의 이유를 밝히자, 조용히 공감의 탄식이 터진다. 그러곤 '수고했어, 오늘도'란 노래를 끝으로 엄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

### 세상의 모든 엄마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다음 초대게스트는 가요계의 디바 장혜진 씨이다. '꿈의 대화'를 시작으로 하나뿐인 딸을 위해 만들었던 '나의 태양까지', 장혜진 씨의 열정적 무대에 장내는 갈수록 열기를 더한다. 자전적인 이야기를 고백하며, 워킹맘에 대한 응원 또한 잊지 않는 그녀. 덕분에 장혜진 씨는 객석으로부터 열렬한 앙코르 요청도 받는다.

이제 기다리고 기다려온 스타강사 김미경 원장의 강연 순서. 김신영 씨의 소개에 모두가 무대만 보는데 "모두 잘 지내셨죠? 반가워요~" 정작 김미경 원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발원지는 다름 아닌 객석이다. 예상치 못한 등장엔, 관중석에서는 '까~아~악!'

환호가 쏟아져 나온다. 역시나 유쾌한 그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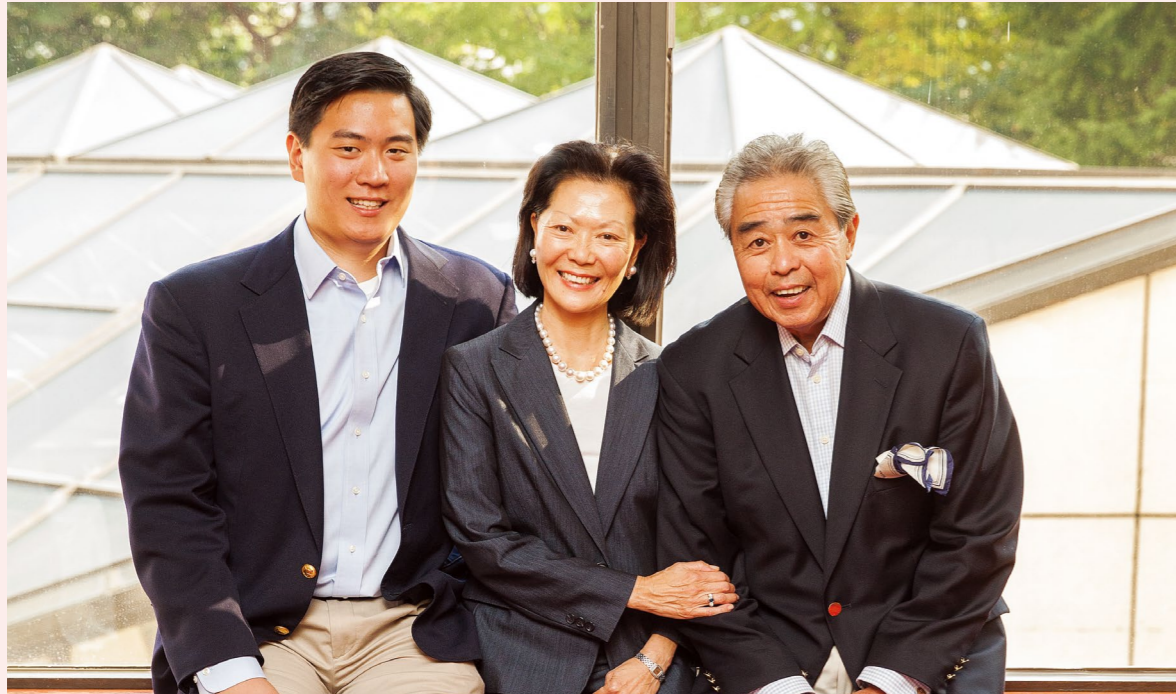
김미경 원장은 지난해 켄거루스토어(미혼모의 자립 돕는 매장) 설립을 위한 모금캠페인 '점프 위드 베이비(Jump with baby)' 이후, 홀트아동복지회와 꾸준히 인연을 이어온 미혼모의 든든한 멘토이다. 때문에 오늘 공연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는데. 실제로, 김미경 원장은 미혼모 및 미혼부 등과의 만남을 수차례 가지며, 선배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실질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단다.

때론 재치 있고, 때론 날카로운 입담으로 삼시간에 좌중을 압도한 김미경 원장은 "미혼모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자"라며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태도"라고 단언한다. 요컨대 선택에 대한 옳음을 인정받으려거든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수정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단 것. 더불어 "스스로를 원망 말고 사랑해라"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세상에 완벽한 엄마가 있을까? 누구나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뿐이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나된 이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며, 또 하나의 엄마인 미혼모를 응원하고 공연을 맺었다. 세상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바로 '엄마사람'이다.

# 사랑은 끝없이 순환한다

입양 1세대 김 리(Kim Lee)



가까이, 오래도록 서로를 지켜봐온 사람끼리 어딘가 닮게 마련이다. 특정한 말투일 수도 있고, 맛과 향에 대한 공통된 취향 내지는 눈 꼬리와 입 꼬리가 함께 웃는 환한 웃음일 수도 있다. 1세대 입양인이자 홀트를 통해 또 하나의 입양가족을 일군 김 리 씨와 그 가족을 만났다. 부부, 그리고 부자와 모자 간에 공유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바라보며, 가족은 함께한 세월과 사랑의 연대임을 새삼 되새겨본다.

김 리(Kim Lee) 씨와 양 옆에서 그녀를 호위해 온 늙은 동행인들은 한눈에도 가족임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닮아 있었다. 악수를 청해온 손은 따뜻했고, 가만히 마주쳐오는 눈빛은 부드러웠으니, 세 사람이 공유하는 훈훈한 기운 속에, 이들 가족만의 굳건한 역사와 그 근간이 되는 사랑을, 결 굳은 믿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10월, 홀트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은 김 리 씨는 6·25 전쟁 즈음 태어나 1955~1960년 사이에 해외로 입양된, 이른바 '1세대 입양인'이다. 홀트아동복지회 설립자 고(故) 해리 홀트 씨의 손을 잡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1956년, '영희'라 불리던 세 살 배기 아이는 오하이오 콜롬버스에 거주하는 백인 부부에게 입양되어 '김'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다.

"부모님은 저 외에도 언니와 오빠 둘, 여동생을 한국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하셨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러하듯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무척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았고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어요. 우리 형제들은 그 마을의 유일한 동양인이었지만, 친밀한



이웃의 보호를 받았기에 편견을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동양인 입양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 건 11살이 되던 해, 유년 시절을 매듭짓듯 오하이오를 떠나면서부터다.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재혼은 그녀 인생에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마련했다. 직업 군인인 새아버지를 따라 2~3년 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던 까닭. 더 이상 새동지 같은 고향의 보호 아래 안온함을 누릴 순 없었지만, 대신 새롭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들이 활짝 열렸다.

“플로리다, 하와이, 뉴욕, 코네티컷 등지로 옮겨 다니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한때 거주했던 주마다, 그곳 친구들과의 행복한 추억이 생생하죠.”

## 사랑받은 아이, 세상에 사랑을 되갚다

낯선 이웃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때때로 무신경한 인종차별적 언행을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아이의 건강한 자아엔 미미한 자괴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며 성장했다. 잦은 이주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빠른 적응력을 키웠으며, 보다 넓은 세상에 대한 동경을 키워나갔다. 항공사 승무원에 지원한 것도 그 때문.

꿈꾸던 대로, 승무원이란 직업 덕분에 각양각색의 문화와 풍경,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에 대한 시야각을 넓힐 수 있었다. 저마다 고유한 개성과 결을 지녔지만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길 원한다는 것, 인류라는 큰 틀 안에서 바라본 국적과 인종은 소소한 '다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한 김 리 씨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갚기로 결정한다. 1978년, 그녀는 홀트의 후원자가 되었다. 그녀의 말을 인용컨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1984년, 홀트 할아버지 손을 잡고 모국을 떠난 지 28년 만에 방문한 한국은 예기치 못한 감정의 파동을 안겨줬다. 어린 나이에 떠난 터라 정체성에 대한 혼란 없이 자연스레 미국인으로 자란 그녀였다. 그럼에도 '나라'는 존재의 시원이 지닌 기운은 미처 그녀가 들여다본 적 없던 깊숙한 감정을 건드렸다.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홀트를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이내 비행 승무원이란 직업을 활용,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다.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는 아이들을 에스콰트하는 자원 봉사자 그것. 새로운 운명 앞으로 아이들을 데려다줄 때마다 축원을 잊지 않았다. 증만한 사랑 속에 자라나길,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그녀가 만난 것과 같은 행운이



것들길 빌었다.

그로부터 7년 후, 김 리 씨는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 특별한 에스콰트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번엔 그녀의 아들을 데리러 가는 비행이었다. 한국 이름 진우. 김 리 씨와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사내아이는 김과 알란 부부를 만나 '앤드류'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다. 아들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는 부부는 당시의 감정을 "Wow...", 짧은 감탄사로 대신했다. 때로, 언어란 얼마나 부박하고 야박한가. 온 마음을 기울인 간절한 만남, 그 순간의 설렘과 기쁨을 표현할 언어가 존재할까. 아들을 처음 품에 안던 순간으로 돌아간 듯 눈빛이 촉촉해진 그녀가 꺼내든 한마디는 다음과 같았다.

"아들은 우리 부부가 원하고 바라온 모든 것의 결정체죠."

'엄마'로서, 김 리 씨는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전쟁의 참화를 겪고 생을 위협하는 궁핍 속에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부모의 가슴 아픈 선택을 존중한다고, 아이만은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었을 간절한 마음, 그 '이타적 결정'에 감사한다고, 아이를 키우며, 또한 아이가 키워준 엄마의 품성은 삶과 사람에 대한 끝없는 포용력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H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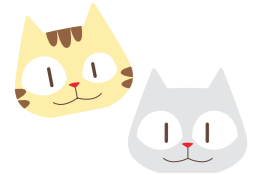
# 우리는 사내수공업으로 봉사활동 한다!

“바늘에 실이 안 꿰어져요~” “이건 사내 수공업이네요~” 곳곳에서 바늘에 실을 꿰고, 한 땀 한 땀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봉사활동 현장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평소 자신의 옷에 단추 한 번 달아보지 않은 듯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연신 웃음꽃을 피우며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애착 인형을 선물해주기 위한 손길입니다. 봉사자들의 수만큼 다양한 모습이었던 봉사 현장을 찾아가 봅시다.



1. 신한금융투자 임직원들과 함께한 디어패밀리박스  
2. 에스-오일 임직원 자녀 봉사활동 캠프  
3. 봉사로 인연을 만드는 갓데이트

## DEAR FAMILY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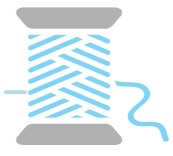


### ☀ 신한금융투자

자신을 오래도록 알아온 친구의 응원 한 마디, 꼭 잡은 손만으로도 그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후원과 봉사로 인연이 된 오랜 친구 신한금융투자가 그렇습니다. 사내 바자회, 전시회, 홀트일산 복지타운 봉사 등 다양한 모습의 손길로 함께해온 신한금융투자는 2015년에는 아기를 지키는 한 땀 디어패밀리 박스로 함께했습니다. 365명 임직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부서가 모여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군대 생활 이후 바늘을 처음 잡아보셨다는 부장님은 자신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다며 끝까지 인형을 완성해냈습니다. 봉사활동의 의미에 있어서 나이와 직급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듯, 신입사원이나 부장님이나 서로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 ☀ KB손해보험

김장철 이웃집의 감장을 도와주는 손길처럼 홀트에 뺨친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홀트 본부 이웃으로 만난 KB손해보험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회의 아이들이 지나가는 모습, 미혼모들을 돕기 위한 행사 등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후원을 결정한 후, 봉사라도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혼양육모 가정에 전달한 키트를 포장하는 봉사를 하다가 올해는 아이들을 위한 애착인형을 만드는 봉사까지.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5년 연말까지 312명의 참여를 약속했으며, 현재 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 ☀ 갓데이트

핑크빛 봉사활동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결혼문화 선교단체인 갓데이트가 단체 미팅 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봉사입니다. 40명이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에 모여 함께 바느질을 하고 아이들에게 전달할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어색한 기운이 흘렀지만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활동하고 나니 어느덧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갓데이트 문형욱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를 찾는 중에 타인을 돌아볼 줄 아는 모습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길 바라며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에도 홀트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 에스-오일

매년 봉사활동과 후원을 지속해오고 있는 에스-오일은 직원뿐 아니라 임직원 자녀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이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 교육 후 장애 체험과 디어패밀리박스 봉사로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지난 여름의 봉사활동은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의 도구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입니다. 부모님 동료의 자녀들과 함께 봉사하고 친구가 된 후 부모님의 퇴근에 맞춰 함께 귀가함으로써 부모님은 자꾸 멀어져가는 사춘기 자녀들과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자녀는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봉사에 참여했던 한 친구는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새로운 나라에 온 것 같았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주항공, 한국에브비, 공간정보연구원, OCI,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디어패밀리박스 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방법은 달라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픈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홀트



기업 및 개인 디어패밀리 박스 봉사활동 참여 문의 : 02-331-7142

글·김유진 · 후원개발팀

# 음악이 있어 더욱 행복한 만남 '사랑나눔뮤직페스티벌'

## 홀트학교 개교 40주년 기념음악회



'작은 촛불 하나가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촛  
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  
고...' 노래 가사가 우리에게 어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까요? 2014년 어느 날, 평소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많은데  
다 라디오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진행한 개그맨 김현철  
씨와 몇 번의 공연을 함께한 뒤, 그는 홀트학교 명예지휘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고양아람누리 아  
람음악당에서 열렸던 '사랑나눔뮤직페스티벌'에서도 그는  
우리와 함께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웃음과 감동이 함께했  
던 그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에그리나 오케스트라, 우리는 만나고야 말았다

"싫어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각의 홀트학교 오케스트라실. 이제 그만 악기를  
정리하자고 하는데도 한 번 더 연주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이 있습  
니다. 2012년 처음 오케스트라를 시작할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입니다. 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지휘를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우  
리 에그리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제는 스스로 악기를 꺼내 연습을 하  
고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 합주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오케스트라 사업에 처음 지원했을 때만

해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오케스트  
라라니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에는 지원이 어렵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명처럼 오케스트라 악기와 만났습  
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으로 한음씩 소리를 내기  
시작하던 우리 에그리나 오케스트라는 이제 더블베이스, 팀파니,  
글로켄슈필, 오보에까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  
어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줄, 할머니 줄, 아빠 줄, 엄마 줄...' 우리가 현악기의  
현에 붙여준 이름입니다. '1번~ 2번~... 5번~' 우리가 '도레미'  
대신에 붙여준 음 이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악보는 잘 못 봅니다. 그러나 음악  
은, 악기는 이렇게 우리만의 방법으로 즐길 수 있  
습니다.



### 음악이 있어 더욱 행복한 만남...

#### '사랑나눔뮤직페스티벌'

2015년 11월 4일. 이 모든 만남이 한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쉽 없이 달려온 우리 에그리나 오케스트라의 그동  
안 노력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동안 에그리나 친구들도 끊임없이 연습을 했지만 협연  
하는 친구들도 그 못지않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지역사회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과의 연주를 통해 우리는 장애와 비장애의 진정  
한 화합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창클라리넷양상블 친구들, 핑거스  
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양, 천재 기타리스트 이강호 씨와의 연주  
는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우리학교  
의 또 다른 자랑 풍물패 '우리랑'과의 연주는 그야말로 환상의 하  
모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연이 끝난 후에도 공연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했  
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원들에게 환호를 보냈고, 특히 우  
리 학교 졸업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  
심의 눈,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분들도 공연이 끝나자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애학생들  
의 오케스트라를 우리 에그리나 단원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연주한 에그리나 단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따뜻함을 힘으로 그들은 앞으로도 연주하고 또 연  
주해나갈 것입니다.

글\_엄현지 · 홀트학교 교사

# 전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소아재활팀, 전주영아원 천사들과 만나다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동화책 속이나 존재할 것 같은 살아 있는 순수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 '전주영아원'. 이곳에서 건강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천사들을 위해 매일 묵묵히 찾아와 아동들의 발달지연과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진행해온 전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소아재활팀을 소개합니다.



## 어려움을 나누며 대비하고픈 아름다운 동행

토요일 아침이 되면 전주영아원 앞마당에는 반복적인 일상처럼, 단정한 차림의 전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소아재활팀 선생님이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합니다. 재활의학과 박성희 과장님을 중심으로 정현자 팀장님 외 12명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 그 주인공. 전주영아원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치료해주기 위해 주말 아침 단잠을 포기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부나 산전 관리가 되지 않은 미혼모들의 영유

아는 고위험 영유아가 될 확률이 높고, 추후 발달지연과 장애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조기진료와 치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주영아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북대학교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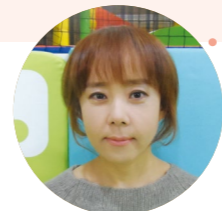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아동들을 보살펴야 하는 전주영아원의 특성을 고려해 인력의 제약에 도움을 주고, 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장애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전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소아재활팀이 나선 것

입니다. 그게 벌써 2013년 6월부터니까 3년이 넘게 매일 셋째 주 토요일마다 전주영아원을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재활의학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고통이라는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전주영아원 아이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어떤 도움이든 놓치지 않으려고 살피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비록 말이 통하지 않는 영아라 할지라도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치료하는 모습에서는 진한 애정이 절로 느껴집니다.

## 천사들에게 희망을 - 몸과 마음을 여는 치료 선물

소아재활팀 재활의학과 과장인 박성희 교수님은 아이들의 진료와 추적관찰,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직원 대상 교육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아이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은 물론 진중함과 신중함이 느껴집니다.



“저희는 늘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요”  
- 정현자 선생님

## Q. 어떤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매달 봉사활동을 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소아재활팀은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는 또래의 아동들과 비교되는 점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마음 한구석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치료사로서 더욱 최선을 다해요.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자극을 주고, 여러 가지 작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 Q. 특히 보람된 순간이 있나요?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할 때는 낯설어하고 꺼리기도 하지만, 곧잘 따라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요. 다른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저 역시 진심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매달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더 안정된 상태로 쑥쑥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흐뭇하고 기뻐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발달 지연과 비정상적인 자세, 행동으로 인해 벗어난 보행 패턴을 보이는 아동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발달촉진 운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전주영아원 직원들에게도 그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은 인지·소근육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해 1:1 또는 그룹 활동을 통해 각각의 아동들에게 의미 있고 목적 있는 활동을 제공하며,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은 인지와 언어발달 지연과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그림카드 및 구강 자극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용해 자극을 주는 적극적 치료를 통해 아이들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영아원 아이들의 몸을 본다는 것은 마음을 만져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선생님들이 주는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영원히 밝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빛을 발하기를 소원해봅니다. 

## Q. 향후 봉사활동 계획은요?

“우리가 이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해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치료 외에도 전주영아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정보를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꼭 그럴 거예요. 발달지연과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장애를 극복, 학교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더불어서 앞으로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진행할 거예요.”

지원봉사자는 오늘도 어두운 세상에서 별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별들과 가까이 지내다보니 전주영아원은 훨씬 더 별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가슴 한편에 강렬한 사랑의 불길을 태우며 전주영아원에 따뜻함을 전해주고, 사랑하며, 격려해주는 전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소아재활팀 모든 선생님들께 무한한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 사회공헌 ●

캥거루스토어 2호점 오픈



9월 24일, 캥거루스토어 2호점(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소재) 오픈식이 진행됐다. 오픈식에는 캥거루스토어 건립을 후원한 IBK기업은행 권선주 은행장, CI 디자인 후원사인 HS애드 김종립 대표이사, 말리 홀트 이사장, 김대열 회장, 선 홍보대사가 함께했으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캥거루스토어를 오픈해나갈 예정이다.

(주) 건영, 아동양육비 후원금 전달

(주) 건영은 9월 10일 우리회를 방문해 위탁아동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위탁아동 양육에 필요한 분유, 기저귀 등 아동양육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사내 봉사동호회 직원들의 봉사활동 및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미혼한부모를 위한 문화·예술비 지원

신한은행이 9월 2일 우리회 미혼한부모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비를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1만 원씩 모은 금액으로 우리회 미혼한부모들로 구성된 아카펠라 중창단 '해피맘싱잉'의 감습비와 공연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본 부 ●

홀트大巴자회 성황리에 마쳐

10월 30일 우리회는 의료아동 지원을 위한 '홀트大巴자회'를 열었으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大巴자회를 통해 모금된 판매 수익금 전액은 장애와 질병이 있는 의료



아동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회 제6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참여



우리회는 10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에 참여했다. 국내 사회복지 단체와 주요 기업 사회공헌팀 등 총 67개 기관이 동참했으며, 우리회는 미혼양육모 가정을 위한 디어패밀리박스 캠페인을 홍보했다.

스타강사 김미경 씨, 홀트 패밀리로 위촉



10월 2일 우리회는 스타강사 김미경 씨를 '홀트 패밀리'로 위촉했다. 김미경 씨는 본인의 첫 토크쇼에서 홀로 방청 온 미혼한부모와의 만남을 계기로 우리회와 인연을 맺었으며, 미혼모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재능기부 강연 등 우리회 미혼모 사업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우리회 2015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우리회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 환원 및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9월 17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홀트가족나눔교육 '패밀리 메이커'는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들과 교안 개발을 진행해 현재 5개 학교 1,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행했으며, 앞으로도 3,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사회복지대상 수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는 9월 7일 올림픽홀에서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전국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우리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현재까지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을 시작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조병국 부속의원 명예원장 성천상 수상

8월 24일 제3회 '성천상'에 우리회 조병국 부속의원 명예원장이 선정됐다. 성천상은 JW그룹이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76년부터 현재 8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의료봉사활동을 지속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 지방사무소 ●

홀트 창립 60주년 기념 일일카페 개최



경남사무소와 충청사무소는 각 후원회 회원들과 함께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일일카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위탁아동들의 아동의료비와 양육비 기금 마련을 위한 자리로 입양가족, 후원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여해 많은 자원과 관심 속에 행사를 마쳤다.

대구사무소, 사랑나눔바자회 개최

11월 7일 대구사무소는 여성아이병원과 함께 의료문제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사랑나눔바자회는 대구 지역의 기업에서 아동물품, 성인의류, 이불 등 여러 물품을 후원받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부산사무소, 입양가족 교육 및 캠프



부산사무소는 10월 31일~11월 1일 양일간 '부산·울산·경남 한사랑회 입양가족 교육 및 캠프'를 경남 통도환타지에서 개최했다. 총 129명의 입양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입양가족 소개, 반면견 입양 교육, 공개입양 강의, 입양아동 사례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  
2015 정기공연 성황리에 마쳐



홀트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 2015 정기공연이 10월 21일, 극장 '웅'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특별하게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많은 후원사와 후원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 마무리되었다.

프로젝트, Score 쇼케이스 무대 펼쳐



11월 4일, 홀트타운 장애인들이 직접 작곡한 포크송을 발표하는 쇼케이스 무대가 홀트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장애인 10명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작곡해 총 10곡을 완성했으며, 흥대에서 활동하는 인디가수들이 쇼케이스 무대를 꾸몄다. 발표된 노래와 음반은 홀트일산복지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 홀트학교 ●

홀트학교, 제3회 특수학교 씨름대회 개최

홀트학교가 주최하는 제3회 '고양시장애 경기도 특수학교 씨름대회'가 10월 8일 홀트학교 특설 씨름경기장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장애학생들의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배양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며, 전통 민속경기인 씨름에



대한 계승 발전과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 종합사회복지관 ●

시각장애인 '도자기로 빛의 가을 이야기'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10월 27일 헤이리 도자기체험학교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나들이에는 손으로 촉감을 느끼는 활동을 좋아하는 시각장애인 20명이 함께해 각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연필꽃이, 그릇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즐거운 체험 시간을 가졌다.

2015 홀트 자원봉사자 아우회 개최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 171



명과 함께 '오늘 하루 떠나자'란 주제로 청주 청남대와 문이문화재단지를 10월 28일 방문했다. 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원봉사자들 간의 단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한글교실 수강생, 세종대왕상 수상

11월 13일, 운봉종합사회복지관 한글교실 수강생이 '제1회 어른의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에서 최우수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해운대구 평생학습도시 & 주민자치축제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행사로 해운대구 여러 어르신들이 참석해 역량을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바른 인성 양성 프로젝트 '인성의 조건' 실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0월 24일~25일 1박 2일 동안 아동들의 올바른 인성 양성을 위한 '인성의 조건' 예절캠프가 진행되었다. 김봉곤 예절학교에서 예절·효·배려 등을 주제로 인성교육을 진행했으며, 아동들이 올바른 예절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꽃보다 청춘' 가을 나들이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29일 지역 어르신 85명과 함께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힐링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름다운 갈대밭과 정원들을 함께 둘러보고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가졌다.

###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 본리어르신 주간행사 실시



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0월 5일~8일 제19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본리어르신 주간행사를 실시했다. 행사 기간 동안 추억의 사진전, 건강 특강, 쿵쿵짜짜 고고장, 찾아가는 체력 측정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 소방안전교육 및 모의대피훈련 실시

아름들에서는 10월 16일 마포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입소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심폐소생술 실습과 모의대피훈련도 함께 받아 평소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위기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고운돌, 수원시 '나눔 한마당'에서 공로상 수상



9월 19일, 고운돌 관련 봉사자들이 수원시에서 진행된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나눔 한마당' 행사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수년간 미혼모들의 검정고시 수업을 도왔던 삼성 '그루터기' 봉사단과, 고운돌 생활복지사 이윤미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아침粥, 연합 가족 나들이 실시

아침粥 입·퇴소 엄마들과 주거 지원 가족들이 10월 23일 한국여성재단 지원으로 대전 오월드 나들이를 다녀왔다. 생애 처음 동물원에 간 아이들의 눈망울은 연신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양육에 지쳐 있던 엄마들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 미혼양육모 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



마포클로버에서는 10월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5 한부모가족 '모두 하나 대축제'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엄마와 아기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한부모가족도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라는 인식개선을 돕고, 한부모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대전클로버, 생활요리 실시



대전 클로버에서는 11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대전왕조권요리학원에서 입소자 전원이 생활요리를 배우고 있다. 기본 밑반찬, 찌개 및 면류, 아기들을 위한 이유식 만들기 등 엄마들의 정성이 깃든 음식을 통해 건강한 생활과 아기들의 성장을 기대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대구클로버, 베이비 마사지 수업 진행

대구클로버는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격주로 수요일마다 베이비 마사지 수업을 진행했다. 아기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베이비 마사지로 엄마와 아기의 정서 교감에 도움이 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2015 가정경영아카데미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9월 1일부터 22일 까지 4회에 걸쳐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녀 양육법' 교육

을 진행했다.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통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Safe-Keeper(안전지킴이)' 프로그램 진행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9월 17일~10월 22일까지 수성구청 평생교육 지원사업 'Safe-Keeper(안전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역 내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과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 '다(多)함께 하나! 마포구 가족놀이마당' 개최

10월 24일,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多)함께 하나! 마포구 가족놀이마당'을 개최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100명이 모여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부터 가족 레크리에이션, 골든벨 등 다문화가족 간의 친밀감과 자녀와의 관계가 향상되는 시간을 가졌다.

###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 사업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9월 11일~9월 21일 9박 10일 동안 친정부모 초청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다문

화가정을 대상으로 2개국(베트남·중국) 47가정(8명)을 초청해 건강검진, 경주 나들이, 한국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입양부모 교육 실시

10월 31일,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에서는 국내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훈육 방법'이라는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전문심리상담사 문경숙 선생님의 강의로 입양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동 양육에 대한 궁금증 및 건강한 양육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 ●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펼쳐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11월 23일, 주안역 광장에서 '우리 모두가 아동지킴이입니다'라는 주제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전주영아원 ●

### 아동 체험학습 캠프 개최



10월 27일, 전주영아원 아동들이 충남 국립생태공원으로 체험캠프를 다녀왔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생태공원을 구경하며 극지관, 열대관 등을 둘러보고 여러 동물들을 직접 보고 만지는 오감만족 체험 시간을 가졌다.

### ● 어린이집 ●

### 포도 수확·농촌 체험 나들이



마포어린이집은 9월 11일 강화로 포도수확 및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에 다녀왔다. 썩개떡 만들기, 포도 수확하기, 농촌 길 산책하기 활동을 통해 도시와 다른 농촌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수확의 기쁨을 경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은방울어린이집 졸업여행

은방울어린이집 7세반 아이들이 11월 11일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5년 동안 지내온 정든 어린이집을 떠나 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아이들이 졸업여행을 통해 마지막으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 전국후원회 ●

### 다문화가족과 함께 '송편 빚기' 행사

강원후원회(회장 : 신명숙)는 9월 3일 결혼이민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예절 교육 및 송편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강원후원회원들과 결혼이민자들이 함께 송편을 빚으며 추석을 이해하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요보호 이동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인천사무소 아기사랑후원회(회장: 배희숙)는 9월 12일 요보호 아동들의 의료비 마련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위탁모들로 구성된 특별한 후원회인 아기사랑후원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후원금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 후원금은 요보호 이동을 위한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홀트아동복지회 창립60주년 기념

'홀트와나' 수기공모전 수상집

# 러브 인 액션

## 도서 판매

**구매 안내**

- 판매금액 : 도서1권당 1만원(배송비 포함)
- 판매방법 : 온라인 신청 후 계좌로 송금(입금은 신청일 포함 3일 이내)
-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홀트아동복지회 국민은행 479037-01-008243
-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Tel | 02)331-7079, Email | pr@holt.or.kr

입금은 신청일 포함 3일 이내이며 제주도/도서/산간 지역은 배송관례로 제외됩니다  
판매된 도서에 대해서는 후원금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http://www.holt.or.kr>

# 2015년도 홀트 이웃으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전 확인**

지로납부의 경우 12월 25일까지  
후원금을 꼭 납부해주셔야  
2015년 기부내역에 반영됩니다.  
후원자님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정확한지 확인해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http://www.holt.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부금 영수증 출력

온라인 회원 가입자가 아닐 경우  
[www.holt.or.kr](http://www.holt.or.kr) 접속 ▶ 회원 가입 후 ▶  
후원팀(02-331-7074)으로 온라인 등록 요청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http://www.yesone.go.kr) ▶ 기부금 영수증 출력

\* 국세청 발급은 2016년 1월 중순부터 이용  
문의 1899-0923

\* 홈페이지를 이용해 출력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말 영수증 인터넷 출력 확대로 개별 우편발송 서비스는 종료되었으나 우편 발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02-331-7074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 후원사업 소개

####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 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용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4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http://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 LIG손해보험이 KB손해보험으로 새 출발합니다

함께 하면 할수록

더 밝고 크게

빛을 내는 희망처럼,

LIG손해보험이

KB손해보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더 큰 안심을 드리는

국민의 희망파트너가

되겠습니다.